‘나’라는 암 치유의 기적

(에스겔 15:1~8)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3.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4.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수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7.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8.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라는 암 치유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라는 암 치유의 기적

우리는 삶의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건강 재정 가족관계 취직 등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은 ‘나’라는 암에 비하면 며칠 앓다가 사라지는 감기와도 같습니다. ‘나’라는 암만 제거할 수 있다면 문제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무척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나’라는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불교의 용어를 예로 들어보기로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석가가 태어나면서 외쳤다는 탄생게(誕生偈)로 유명합니다. 이 말은 불교의 인간이해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말로써

석가가 태어난 이유를 불교 나름대로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가는 태어나자마자 한 손으로는 하늘을 다른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높도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지는 구절이 더 있습니다. 삼계개고 아당안지 (三界皆苦 我當安之)라는 말입니다.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 마땅히 이를 평안케 하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삼계(三界)는 천상계와 인간계와 지옥계를 말합니다. 이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는 이유는 ‘나’라는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옥계나 인간계가 고통의 바다임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천상계까지 고통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나’라는 존재가 하늘보다도 더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삼계가 다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때로는 고집불통 독불장군 안하무인의 상태를 일컫기도 합니다만 본래의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홀로 당당하게 살아가거나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이 전부 나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는 사성제(四聖諦)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거룩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사성제가 있는데 고성제는 존재함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집성제는 고통에는 원인이 있는데 마음의 집착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멸성제는 이러한 집착을 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성제는 고통을 멸하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기 위한 8정도의 바른 수행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사성제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본래 의미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 바닷가를 산책하다보면 바닷가를 찾아온 사람들의 탄성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미세먼지 마셔가며 지내다가 파랗고 깨끗한 바다를 마주대하면 너무나 시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다를 보고 감탄하는 순간조차 그 사람은 단순히 바다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보고 대면하게 된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아하던 순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전에 받은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렇게 좋아 보이던 바다도 더는 좋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통령 자리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된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얻은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애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실은 가난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함께하지 않는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불치병 암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암과 함께하지 않는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나로 인해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높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천상계에도 해당됩니다. 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과 함께하는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극락이나 천국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락에 있는 나를 좋아하고, 천국에 있는 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천국과 지옥까지도 가장 높은 나를 위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둡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집착을 없애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고인이 되신 김수한 추기경께서는 권력을 향해 가는 3김씨에게 “마음을 비우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에 대한 집착만 없앨 수 있다면 이 세상 삼라만상에 대한 모든 집착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불교 나름의 언어를 통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8정도의 수련과 정진을 통해서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고 해탈과 열반에 이르리라는 확신은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는 저로써는 불교도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다만 인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했다는 점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나야 말로 진짜 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온 선민들을 열매 없는 야생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주안점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무 자체에 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열매가 따로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열매라는 말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는 열매 맺기 위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것에 관심이 없는 포도나무 같이 선민들의 잘못된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혹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선민들의 상태는 열매보다는 나무자체에 관심을 가진 야생 포도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목재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기껏해야 땔감으로 쓰일 뿐입니다. 3절을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기둥이나 가구를 만들기는커녕 나무못으로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야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나 자신이 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완벽함을 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민이 된다는 것은 괜찮은 나, 멋진 나, 죄사함 받은 나, 깨끗한 나, 천국 가는 내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

난 선민들이나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석가모니의 진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선민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붙잡아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아 연결된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가 표현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선민들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마치 물이 흐르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상수도에 연결되면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고, 하수도에 연결되면 더러운 물이 흐르게 됩니다. 선민은 상수도에 연결되기 위하여 선택된 파이프였습니다. 파이프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연결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나 자신이 좋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선민들이 그릇에 비유되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듯이 그릇은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릇들 중에 도자기는 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쓸모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야생 포도나무와도 같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포도나무가 목재로서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무자체의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나’라는 암에 걸린 포도나무가 바로 선민 유다 백성들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이들이 훌륭하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 사함이나 의로움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민들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의로운 나, 죄 사함 받은 나로써 살아가기를 고집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라도 돈이 많은 내가 되기를 바랐고, 부흥하는 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에서도 발견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사랑하는 것을 얼핏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되는 목회의 주인공으로서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장로님은 사업이라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업 잘하는 나를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든 사업하는 장로님이든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목회자이고 사업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사장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직원이고 자녀 앞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가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곧 나의 관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집중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연결된 중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멋진 나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죄 사함 받고 천국갈 수 있는 나를 완성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결된 상태가 바로 구원입니다. 수원지에 파이프가 연결되면 물이 채워져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연결된 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면 나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전에는 바다를 보아도 나를 보았고, 산을 보아도 나를 보았고, 애인을 보아도 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이웃이 보이게 되고 진정한 이웃사랑도 가능해집니다. 이 상태가 구원입니다.

해탈과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로써 인간의 암을 진단할 수는 있었지만 결코 8정도를 통해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참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시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서 그곳에 계속 머물기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 초막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자 자아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라는 집착은 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관심과 의식의 결말은 나로 끝나게 됩니다.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나'입니다. 오직 영화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졌을 때에만 나는 잊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나를 잊은 상태가 되면 삶에서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변화산의 베드로의 경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 실제 삶에서도 지속되게 됩니다. 나를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백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나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전부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순환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이유는 하나님 크기로 지어진 마음을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습니다. 오장육부가 건강할 때에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아프든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비로소 그 부분의 장기를 의식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크기의 마음이 고파서 외롭고 아프면 '나'라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에는 바다를 보고 좋다고 해도 정말로 바다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돈을 좋아해도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를 진정으로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전부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담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의식하는 상태가 만 가지 문제의 근원입니다.
선민이 열매 없는 야생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선민들은 오직 나에 대한 관심뿐이었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도 장사나 결혼도 전부 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음의 고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민으로 택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형통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암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번듯한 나무가 되기만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위장을 가진 사람이 평생 위장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에게서는 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배반할 가룟 유다나 빌라도를 보시고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셨던 것과 같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잊으셨기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기로 지음 받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잊히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나 열반조차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경험한 바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극복되며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마음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의 집착을 끊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돈을 가진 나, 자녀를 가진 나, 건강하기를 바라는 나, 권력자가 된 나, 명품을 가진 나를 이 잡듯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이름 말고는 어떤 이름도 마음에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가진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세상과 연결된 나를 다 죽이고 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만을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천만 번 부를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천만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듯이 구약에서는 이것이 상번제의 어린양을 통해서 예표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해탈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들에 피는 백합화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들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사실은 '나'라는 암에 걸린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고민이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라는 암으로부터 시작된 병일 뿐입니다. 돈 많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이 문제로 여겨집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를 가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로 여겨집니다. 명품을 좋아해도 정말로 그 명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을 가진 나를 좋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만 없애버리면 명품도 좋을 것이 없고 건강도 대단치 않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돈이 있거나 없거나 대단한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다만 나를 없애는 방법은 무슨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연결된 마음을 이 잡듯이 십자가로 눌러 죽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나'라는 암을 치유하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이 기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암을 제거하는 기적은 십자가 생활화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오순절 이후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으로 가득차서 나를 잊은 상태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원은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을 갖고 싶다는 마음부터 죽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세상이 연결된 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나'라는 암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진정한 이웃사랑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열매 맺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나무자체에만 관심을 가졌던 어리석은 포도나무의 상태를 십자가 생활화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참 이웃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